

되살아난 최후 항전지... 다시 울리는 오월 함성

518 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옛 전남도청 앞 '오월광장'서 첫 정부 공식행사
마지막 방송 주인공 박영순씨 국기 경례문 낭독
'K-민주주의' 퍼포먼스...시민 참여 확대 초점

1980년 5월27일 새벽, 계엄군의 총성이 옛 전남도청을 향해 다가오던 순간에도 시민군은 끝내 광장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는 마지막 방송이 울려 퍼졌고, 전남도청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 항전의 공간으로 남았다.

▶관련기사 10·11·15·19면

46년이 흐른 올해, 그 장소가 다시 시민들 앞에 열린다. 원형 복원을 마친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정부 공식 기념식이 처음으로 개최되면서, 오월 광장은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는 공간을 넘어 오늘의 민주주의를 다시 확인하는 무대로 되살아난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은 18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오월 영령의 희생과 민주주의 정신을 시민들과 함께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번 기념식은 단순한 장소 변경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시민군이 최후까지 항전했던 옛 전남도청이 최근 원형 복원을 마치고 개관하면서, 오월의 역사가 기록 속 과거가 아닌 현재의 민주주의 공간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국가보훈부가 올해 기념식 주제를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로 정한 것도 이 같은 의미를 반영한 것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오월 영령의 희생과 민주주의 정신을 기린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주제영상, 현상선언, 기념사, 기념공연, 특별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

으로 약 50분 동안 진행된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기억의 공간'을 '현재의 광장'으로 연결하는 상징적 연출에 무게가 실렸다. 국민의례에서는 복원된 옛 전남도청 개관을 기념하는 국기계양식이 진행된다. 국기계양에는 고윤상원 열사의 조카 이승주씨와 전남대 총학생회장, 오월 해설사 등이 참여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민주주의 정신을 보여줄 예정이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장면은 국기에 대한 경례문 낭독이다. 1980년 5월27일 새벽, 계엄군 진입 직전 옛 전남도청에서 마지막 방송을 했던 박영순씨가 직접 경례문을 낭독한다. 죽음을 각오했던 항전의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 다시 민주주의의 광장 한가운데 서게 되는 셈이다. 46년 전 "끝까지 도청을 사수하겠다"던 목소리가 오월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2면으로
임영민 기자 looks@gwangnam.co.kr



"가자 도청으로" 1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열린 5·18 46주년 민주평화대행진 참가자들이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 집결하고 있다. 시민사회 주도 5·18 기념행사인 민주평화대행진은 1980년 5월 당시 민주화를 외쳤던 가두행진을 재현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광주 후보 781명 등록...80명 무투표 당선

6·3지방선거 D-16

통합시장 5파전·교육감 4파전 확정...광산을 보선 6명 등록

6·3 지방선거와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광주·전남 지역 선거구에 모두 781명이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관련기사 2·3·4·5면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후보자 명부를 분석한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통합선거구와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록 후보는 모두 781명이다.

선거별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5명, 통합교육감 4명,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6명,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73명, 광역의원 지역구 128명, 기초의원 지역구 463명(광주 99명·전남 364명), 광



서구청장 후보 김이강 남구청장 후보 김병내

역의원 비례대표 25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77명(광주 18명·전남 59명)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이종욱,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김광만 후보가 등록했다. 민 후보는 재선 국회의원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경력, 이 후보는 3선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홍보수석 경력을 앞세웠다. 이종욱 후보는 민주노동당 광주지역본부장 출신이며, 강은미 후보는 21대 국회의원과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을 지냈다. 김광만 후보는 호남대 경영대학 초빙교수 경력을 신고했다.

통합교육감 선거는 강숙영·이정선·장관호·김대중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진다.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임문영, 국민의힘 안태욱, 조국혁신당 배수진, 진보당 전주연, 기본소득당 신지혜, 무소속 구본기 후보 등 6명이 등록했다.

▶2면서 계속
이현규·이신하 기자 gnnews1@

광주·전남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시작

18일부터 7월3일까지 신청

18일부터 광주·전남지역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광주·전남지역 2차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광주시민 92만5234명, 전남도민 126만6000명으로, 1인당 15

만원씩이다.

인구감소우대지역 5개 시군(담양·영광·영암·진도·화순)은 20만원, 특별지역 11개 시군(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신안·완도·장성·장흥·함평) 지급액은 25만원으로 상향된다.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첫 주(5월 18일~22일)는 신청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투표로 만듭니다

자세한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위해 정책과 공약을 꼭 살펴보고 투표하세요

선거일 투표

일시 |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장소 | 지정된 투표소
* 거주지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전 투표

일시 |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지방선거 투표용지 가이드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정 선거
지방의원 의원	시·도 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 의원 선거 (지역구)
지방 교육자치	교육감 선거	구·시·군 의원 선거 (비례대표)
세종·제주 (4명)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지역구·시·도 의원 선거, 비례대표·시·도 의원 선거	

*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보궐선거도 함께 실시

지방선거 투표 전 체크리스트

- 입장 확인하기
- 내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확인하기
- 신분증 챙기기
- 유의사항 확인하기

▶ 투표 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두 명 이상에게 기표 시 무효)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됩니다.
▶ 투표할 때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사전투표를 한 후 선거일에 그 사실을 숨기고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 투표지를 잃는 등 훼손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